

2023 새해 이렇게

이학수 정읍시장

민생경제 회복 집중... 핫플레이스 조성해 도심 활성화



600억 지역상품권 발행·공공배달앱 구축·소상공인 기본소득 지급 내장산·문화광장 연계 관광벨트화...교통·자연 재해 위험지구 개선

“2023년 희망찬 계묘년의 신년 화두는 ‘새로운 시작, 희망의 정읍’으로 정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약진하는 희망 정읍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신년을 맞아 인터뷰를 갖고 2023년 핵심 사책을 담은 시장 운영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읍시는 ▲민생경제 회복으로 풍요로운 정읍 만들기 ▲새로운 농업과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농·생명의 첨단도시 조성 ▲누구나 꿈을 가꾸고 꿈을 여는 교육·문화·관광도시 조성 ▲안전하고 청정한 도시, 함께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도시 조성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시장 구현 등을 통해

정읍의 위상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로 민생경제 회복으로 풍요로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정읍상품권 발행을 발령하고, 공공 배달앱 구축과 지역 상품 라이브 커머스 지원, 소상공인 기본소득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업·생명의 첨단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산지자원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과 농기계 지원으로 영농철 인력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반려동물 놀이동산을 조성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시민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교육·문화·관광도시 정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4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입,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 누구에게나 풍성한 학습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60억원을 들여 평생학습관 조성에도 나선다. 아울러 내장산과 용산호, 문화광장을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탄탄한 관광콘텐츠를 구축하고 정읍역과 정읍천을 연계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과 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하고 청정한 도시,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정읍을 만들고자 교통환경 개선과 공영주차장 설치, 가족분노 지원회, 자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을 추진하고 노인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과 독감 등의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59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시민들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과 서남권 어린이 전용 병동을 설치해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기반 조성에도 힘을 보태겠다. 이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열린 시장을 구현하고자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소통실을 설치했으며 나아가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 구현을 위해 시민토론회와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장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더 많은 소통, 더 나은 정책으로 신뢰받는 정읍을 만들겠다”며 “새로운 시작, 희망의 정읍을 만들어가는 그 역사적인 길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남원만의 색’ 입는다



‘2023 남원시 N-도시디자인’ 예시.

지역 고유 특성·관광·문화 연계 N-도시디자인 통합 실행계획 수립

남원시가 남원만의 특성을 살린 도시디자인 콘셉트를 적용, 차별화된 남원만의 색깔을 도시에 입혀나갈 계획이다. 남원시는 “2023 남원시 N-도시디자인”이라 명명된 남원만의 도시디자인을 도입, 지역 고유의 특성·관광·경제·문화를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또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일원화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해 시는 앞서 구도심 통합 마스터플랜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경관계획 등을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통합 실행계획을 수

립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디자인팀을 신설해 경관, 조경, 공원 등 도시의 변화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총괄업무) 역할을 수행하도록 준비 중이다. 나아가 타도시 벤치마킹과 전문가 조언을 통한 통합 실행계획 초안을 만들어 시민 공청회 및 원탁회의 등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도시색 찾기와 공공시설 표준디자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 아이디어 모으기 등을 통해 지역 고유문화와 도시 이미지를 반영한 특화된 디자인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시설부터 사유시설까지 도시디자인을 확장하겠다”면서 “향후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전동과 첨단이 아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에도 연계해 N-도시디자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저소득 가정 학생에 ‘생일축하·명절지원금’

전북교육청이 올해부터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생일 축하·명절맞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된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교육 급여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및 협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교육 급여 대상 학생이다. 교육 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한 학생의 생일 달에는 생일 축하 지원금 4만원을, 설과 추석에는 명절맞이 지원금 각 4만원씩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설에는 지난해 교육 급여를 지급받은 학생에게는 오는 17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을 1차로 지급하고, 올해 1월 신규로 교육 급여 수급자가 된 학생에게는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 1월 생일을 맞은 학생에 대한 생일축하금도 이달 말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이 사업은 초·중·고 저소득 학생의 생일과 명절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대표적인 학생 복지 정책 중 하나”라면서 “가족 간 축하와 감사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가족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산후조리비 50만원→200만원 확대

고창군이 올해부터 신생아 출산 산모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고창군은 올해부터 기존 50만원이었던 산후조리비 지원액이 2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이 군 내 최대 지원규모라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산모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고창군 지역화폐로 지

급하며 출산 당시 거주기간 1년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군은 군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과 50만원 상당의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등 5개 지원사업을 비롯해 고창병원 이용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아동과 보육 지원을 강화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6월까지

정읍시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 시대’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기종(94종 1615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종별 하루 임대료는 농용굴착기가 9만4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승용관리기는 5만6000원에서 2만8000원, 콩 탈곡기는 1만3000원에서 6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농기계임대사업소. (정읍시 제공)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실적은 총 4만5037대, 감면 누적액은 4억8200만원에 달하며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손해보험협회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